

미래를 향한 철도산업의 혁신·도약 위해 국토부, 철도산업계와 소통

- 4월 5일 철도산업계와 함께, 다섯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한 다섯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‘철도산업계’ 부문에서 개최한다.

□ 철도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4월 5일(금) 오전 10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. 경기도, 국가철도공단, 코레일, 철도협회 등 관계기관과 건설·설계사, 차량·시스템·부품제작사 등 민간업체가 함께 모여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.

* 참석민간업체 : 도화엔지니어링, 현대건설, DL이앤씨, 현대로템, 다원시스, 대아티아이, (주)글로비스, (주)씨에스아이엔테크, 대한토지신탁, 한화커넥트, 넥스트레인(주), 모두투어, (주)ENTS, (주)영화사레드피터

○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철도분야 주요정책을 발표하고, 이어서 국내·해외 철도사업 추진시 건의사항, 중소·중견기업의 지원 방안 등 국내 철도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질 정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다.

○ 특히, 금융·민자운영사, 여행·영화사도 함께하여 민간투자의 물길을 열어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, 역사, 열차 등을 이용한 문화와 예술이 담겨있는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한다.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철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현장 상황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”면서,

- “KTX 개통 20주년, GTX 시대 개막 등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 K-철도 위상에 발맞추어 국내 철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, 관광·문화 상품개발, 국제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, 필요한 지원과 소통을 지속할 예정”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현기창 (044-201-3947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